

배포일시	2011. 4. 20.(수) 17:00 (총 2매)	보도시점	즉시
담당부서	대전지방기상청 인천기상대	담당자	대장 박남철
		전화번호	032-761-9969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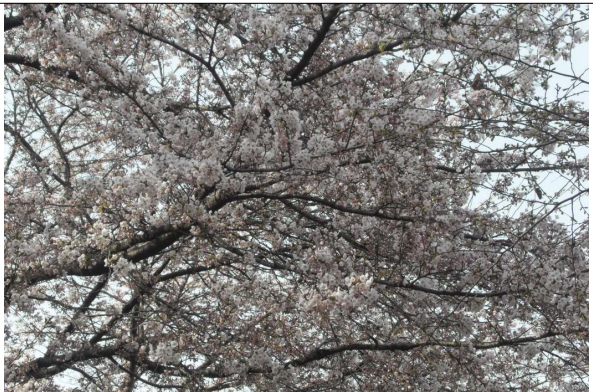
인천 오늘 벚꽃 개화

- 평년보다 5일 늦고, 작년과 같은 날 개화 -

- 인천지방의 공식적인 벚꽃 개화의 기준이 되는 인천기상대(대장 박남철)에 식재된 표준 관측목의 벚꽃이 오늘(20일) 개화하였다.
- 인천 벚꽃 개화는 평년보다 5일 늦었으며, 작년과는 같았음.
(※ 인천자유공원의 벚꽃은 4월 17일 개화하였음)
- 인천의 벚꽃 개화 최초일은 4월 4일(2002년), 최종일은 4월 29일(1936년)이었다.
- 벚꽃이 만발하는 시기는 보통 개화일로부터 약 7일 정도 더 있어야 하므로, 4월 27일 경 활짝 핀 벚꽃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.
- 벚꽃 개화사진



<인천기상대>



<인천자유공원>

※ 참고사항

○ 인천지방 3월 기상상황

	평균기온	강수량	일조량
2011년	4.2℃	14.5mm	260.0hr
평년(1981~2010년)	5.1℃	40.4mm	205.1hr
편차 (평비)	-0.9℃	-25.9mm (35.9%)	54.9hr (126.8%)

○ 개화일과 기준

- 개화라고 하면 꽃봉오리가 피었을 때를 말하나, 그 정도를 정의하기는 곤란하므로, 복숭아, 개나리, 벚꽃 등 한 개체에 많은 꽃이 피는 다화성 식물은 한 개체 중 세 송이 이상이 완전히 피었을 때를 개화일로 봄.
- 개화시기는 2월과 3월의 기온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, 이 기간 중의 일조시간, 강수량 등도 개화시기에 영향을 줌.
- 개화기준은 각 기상관서 표준 관측목을 대상으로 하며, 관광명소의 개화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. 또한 같은 지역이라도 벚나무의 품종, 수령, 성장상태나 주변 환경여건 등에 따라 개화 시기는 차이가 날 수 있음.